

출장결과보고

2025. 07.

청년농 직불제 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관련 일본 사례 조사

농산업혁신연구본부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1.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청년농 직불제 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관련 일본 사례 조사

2. 출장 목적

- 본 연구는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중요 정책 수단 중 하나인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청년농 정착지원 관련 신규 직불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규 직불을 발굴, 추진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이에 더하여 새정부 출범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 운용을 위해 청년농 육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직불제를 포함한 다른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범위가 확대됨.
- 신규 사업(직불제도 포함) 발굴과 해당 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년농 육성정책과 공익직불제도의 목표와 제도 특성을 동시에 고려, 신규 직불 타당성 및 신규 직불의 목적과 지원 대상 등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경영개시단계 외 준비단계·고용취농단계를 지원 중이며, 신규 농업인력(특히 청년농) 확보를 위한 인턴십·서포트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운영 중인 일본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정책 설계 시 참고할 예정임.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농업 인력구조 및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농업·농촌 구조 개선 시 참고할 여지가 높음.
- 본 출장은 일본 농림수산부, 교토부의 경영육성과, 농업회의소, 인력양성 실천농장, 농업연구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일본 신규취농 육성정책(특히, 취농준비·경영개시·고용취농자금) 및 교토부 경영인력·후계육성 정책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음.
-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중앙 정부 수준에서의 일본 청년농 육성정책 전반

- 교토부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영인력·청년농육성정책 추진 동향
- 교토부의 인력양성 실천사례 운영 방식
- 교토부의 청년농업인 교육·컨설팅 방안

3. 출장자 및 출장기간, 출장지

- 출장지: 일본 농림수산성(도쿄), 일본 교토 지역
- 출장자 및 출장기간

소속	출장자	직위	출장기간
농산업혁신연구본부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2025.07.02.~07.05. (3박 4일)

II.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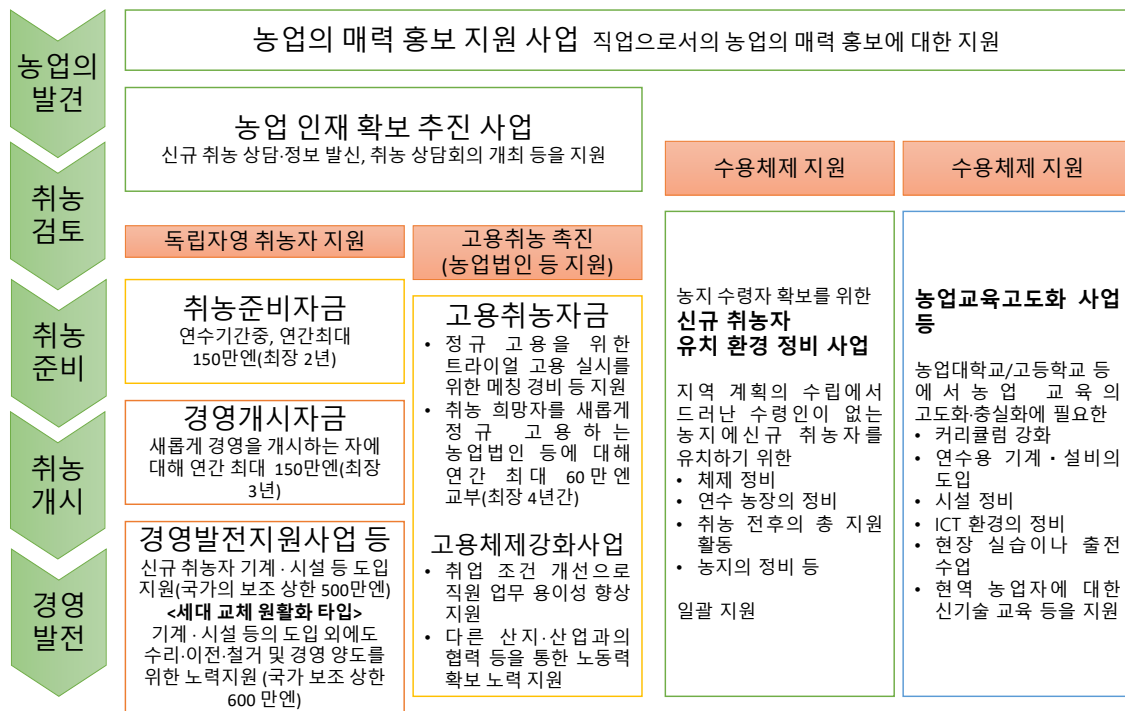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7.2(수)	김포	하네다	출국	○ 출국(김포 09:00 → 하네다 11:20)	-
	하네다	도쿄	대사관	○ 일본 농정 현황 및 청년농 육성 정책 추진 동향 파악 등	주일본대사관 (지성훈 농무관)
			농림수산성	○ 일본 신규취농 육성정책 관련 브리핑 및 질의응답 등(국내 도입 가능 벤치마킹 아이디어 모색) - 취농준바경영개사·고용취농자금	일본 농림수산부 취농여성과 (유타카 카토)
7.3(목)	도쿄	교토	이동	○ 도쿄 → 교토(신칸센, 2시간 30분 소요)	
			교토부 농업회의	○ 교토부 경영인력·후계육성과의 지역사회 연계 청년농업인 육성 추진 동향 파악 ○ 교토부 농업회의소 역할 소개 등 담당자 브리핑 및 질의응답	교토부 경영육성과 교토부 농업회의소 청년 담당 인력창생부
7.4(금)	교토	교토	스몰파머스	○ 농업교육기관 견학 ○ 민간 농업교육기관 운영자 인터뷰 ○ 민간 농업기관과 신규취농지원 프로그램 간의 연계 체계 파악	스몰파머스 농장 (아와사키)
			신규취농인	○ 농업법인 연계 신규취농자 조사 ○ 정책 수혜자 입장의 정책 수요	신규취농인 농장 (하세가와)
7.5(토)	교토	김포	귀국	○ 입국(칸사이 12:50 → 청주 14:35)	-

Ⅲ. 주요출장내용

■ 일본 농림수산성

- 방문 일자: 2025년 7월 2일(수), 오후 15시~17시
- 장소: 일본 농림수산성 취농여성과
- 주요 면담자
 - 경영전문관 加藤 豊(가토 토요)
 - 기획계장 石川 奈々(이시카와 나나)
 - 고용그룹 塩谷 里紗(시오타니 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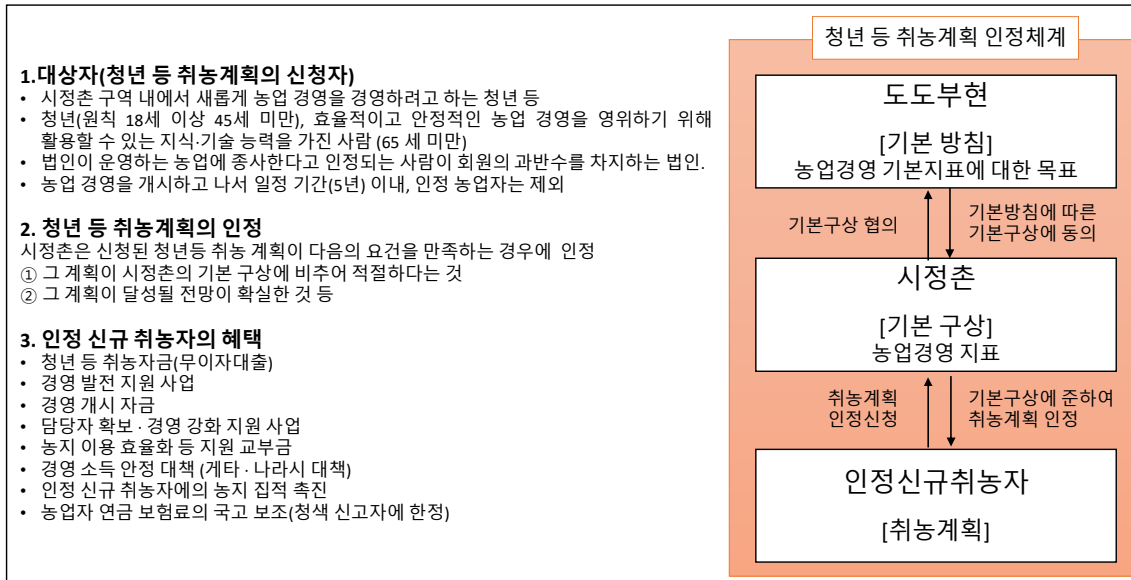
○ 신규 취농 정책의 구조



- 취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취농을 검토하여, 취농을 준비하고, 취농을 개시하여, 농업경영을 발전시키는 전과정에 대해 취농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다양한 정책 중, 독립자영취농자 지원 정책인 취농준비자금, 경영개시자금 등과 고용취농촉진 사업에 대해 주로 질의 응답을 진행함.

○ 인정신규취농자 정책에 대한 질의 응답도 이루어짐.

- 신규 취농자를 지역 농업의 담당자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취농 단계부터 농업 경영의 개선·발전 단계까지 일관된 지원이 중요. 2014년도부터, 인정 신규 취농자 제도를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에 위치시키고, 인정농업자제도와 마찬가지로 시정촌이 청년 등 취농계획을 인정.
- 시정촌의 인정을 받은 인정 신규 취농자에 대해서, 조기의 경영 안정을 향한 메리트 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



○ 일본의 청년취농 시책은 2013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2년 개편이 이루어짐. 최근 개편된 정책과 기존 정책의 차별성은?

- 경영발전지원사업이 신규 도입됨. 기존 취농 준비 2년, 경영개시 5년 등 총 7년의 지원사업이 실시되었으며,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소액의 자금을 다년간 지원하는 것보다는 취농 초기 투자를 확대한 경우에서 영농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경영개시자금 지급 한도를 3년으로 줄이고, 영농투자를 위한 자금지원사업을 도입함. 경영발전지원사업은 49세이하 인정신규취농자에 대해 국비를 최대 600만엔까지 지원함. 기계·설비 구입시 지원요율은 국비 50%, 도도부현 25%, 자부담 25%임.
- 정책의 목표를 재설정함. 경제활동 총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타 산업 부문의 인력 수요도 고려해야 하므로 특정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 같은 차원에서 취농 인구 절대치의 확대보다는 농업 부문 경제활동인구에서 49세 이하의 비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함. (인터뷰 시에는 생산가능연령 인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문맥 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용어로는 경제활동인구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당 목표의 달성 여부는 매년 통계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또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동일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음.

- 신규취농자 정책에서는 신규 취농을 오야모토(부모슬하, 이후 후계농), 독립자영, 고용 등으로 구분
 - 현재 가장 많은 신규 취농은 후계농 형태임. 현재 신규 취농 지원 대책 중 후계농에 대한 지원은 없음. 다만, 후계농이 독립 영농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정책적으로는 독립자영농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후계농이 독립하는 경우는 독립농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자영농으로 구분하며, 이를 묶어 독립자영농으로 표현). 후계농의 경우 자영농(독립농)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일본에서 규모가 큰 농업법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농업법인에서 청년농이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농업법인에 취업하여 해당 법인 내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며, 일정 기간 노하우를 축적하여 자영농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함.
 - 신규 취농 이전에 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 기술 등 영농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임. 연수지원을 받은 사람은 연수 종료 후 1년 이내에 취농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함.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취농준비자금을 최장 2년, 연 최대 150만엔(월 12.5만엔) 지급함. 상근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도부현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1년 이상, 연 1,200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함.
- 신규취농 정책에서 정부와 도도부현, 시정촌, 전국농업위원회 네트워크 등이 협력하고 있으나, 각각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지침 등이 존재하지는 않음.
 - 정부는 도도부현, 전국농업위원회 네트워크 등과 협의하여 정책 사업을 수립하고 관련된 재정을 집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도도부현이나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영향을 행사하지는 않음. 연수사업 등 도도부현에서 담당하는 사업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신규취농자의 농지 확보는 임대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의 농업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기계 등 농업자금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메칭하여 지원하고 있음. 도도부현에서는 분산된 농지의 집약화를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고 있고, 해당 구역 내의 농지에 신규 취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구역이 아닌 주거지 인근의 취락지구에서 신규취업농이 영농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실제 없을 것으로 판단).
 - 실천농장 등 구체적인 취농지원 프로그램은 도도부현에서 지역계획(기존 사

람농지플랜이 법제화) 등에 의거하여 추진하며 연수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됨.

○ 인정신규취농자에 대한 지원

- ‘청년등취농자금’은 ‘인정신규취농자’ 대상 최대 3천7백만엔까지 무이자 17년 상환(5년 이내 거치) 융자 지원으로, 기계/설비 취득 및 영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농지 등 취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융자한도 180억엔)
- ‘경영체육성강화자금’은 농지 등 취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융자이며, 지원대상자 중 ‘인정신규취농자’도 포함되어 있음
- 비슷한 성격의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은 ‘인정농업인’은 지원 대상이나 ‘인정신규취농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또한, 지자체별 농지직접화 등 관련 ‘지역계획(구 사람농지플랜)’에 따라 신규취농자 등 청년농업인에게 빈 농지를 지원할 수 있음(신규취농자유치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
- 신규취농자유치환경정비사업은 빈 농지에 신규취농자 유치를 위한 체제정비/연수농장정비/서포트활동/농지정비 등을 지원함(구 서포트체제구축사업)

■ 교토부 경영육성과농업회의

- 방문 일자: 2025년 7월 3일(목), 오후 16시~18시
- 장소: 교토부청
- 주요 면담자
 - 교토부 농림수산업 인재확보 육성 센터 사무국장 山川 彰宏(아마카와 아키히로)
 - 교토부 농업회의 교토아그리창생 현지추진역 安本 洋一(야스모토 요이치)

- 교토부농업회의(통칭: 교토어그리21)는 청년들에 대한 신규취농과 농지, 농업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교토 아그리 21로도 불리며 1970년 사단법인 교토부농업개발공사로 설립되어 2012년 공익사단법인 교토부농업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됨. 2015년에는 교토부농업종합지원센터와 교토부농업회의, 교토부농림수산부의 연대 강화를 위해 '교토부농업농촌창업센터' 설치하게 됨. 2016년 7월 '교토농업인재육성센터' 설치로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으며, 2018년 7월 '교토부농업회의' 합병으로 현재 이름으로 통합됨.
- 주요 업무로는 첫째, 농지중간관리기구 업무로 농지집적 관련 사업 담당, 둘째, 신규취농지원사업으로서잡카페운영,인력양성 실천농장 및 청년농업인경영력향상 지원 사업 담당, 셋째, 6차산업화 및 농업비즈니스 코디네이터추진 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취업서포트센터의 농림수산업 코너
 - 취업서포트센터는 교토부 내 전 산업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그 중 농림수산업 코너에서 농림수산업에 대한 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당초에 농업 부문 취업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며, 취업을 위해 방문해서 농업 부분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 취업 상담은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1인 당 최장 1시간 상담을 진행함. 상담이 많으면 1일 최대 4명까지 상담을 하기도 하나, 상담이 한건도 없는 날도 있음. 방문 상담만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함께 방문하는 경우도 있음. 이를 위해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음.
 - 상담한 내용은 전산 입력되어 농업회의에서도 열람할 수 있음. 농업회의에서 상담 내용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상담사가 경우에 따라 상담 내용에 근거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락하는 경우는 있음.

○ 사람농지플랜, 연수사업, 신규취농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단고농업 실천형 학사 사례

- 교토부 교단고시는 교토시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1980년대 대규모(512ha) 국영농지를 개발하여 수도작 등의 농업을 추진함.
- 세월이 지나면서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수도작 중심에서 원예로 작물 전환을 추진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이루어짐. 2010년까지는 담뱃잎 주산지로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나, 담배 수요 감소 등으로 담배 농업의 소득 안정성도 유지하기 어려워짐.
- 2012년부터 단고농업 실천형학사를 운영하였으며, 농업 교육은 단고농업연구소에서 실시함. 연수를 마친 연수생은 해당 지역의 농지를 임대하여 영농하도록 하였으며, 6기까지 진행된 후 연수 프로그램 종료됨. 연수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았고, 연수생은 취농준비자금 지원을 받음.
- 평균 영농 규모는 2-3ha로 교토부 평균의 2-3배 수준이며, 양배추 양파 당근 무 등을 재배함. 지역 농협에서 청년농이 어렵게 농사 지은 농산물을 구매하는 차원의 계약재배를 시행하여 판로를 확보해 줌.
- 국영농지이므로 지역 농업회의에서 농지를 25명 신규농에게 임대함. 교토부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교토부 차원의 실천형 학사 추진 계획은 없음.
- 사업 추진 방침은 먼저 취농지를 확보한 후 인력을 모집하여 양성한 후, 연수한 농지를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정착을 지원하는 것임. 교토부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연수사업을 추진하여 연수생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은 하지 않음.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논의 등을 통해 연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교토부에서는 이를 지원함.

○ 사람 농지 플랜과 지역계획

- 일본 농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농지의 유희화 등을 고려 취농자와 농지를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2년부터 추진됨.
- 이를 지역계획으로 법제화하면서, 인정(신규)농업자, 집락영농,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 되며, 지역계획 참여자만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됨.
- 교토부의 경우 2025년 3월 현재, 25개 시정촌(1개 제외), 174개 마을 단위 지역계획 수립됨. 농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농업법인 등이 참여함.

○ 교토부의 농업연수 프로그램 체계

- 연수 농지를 확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후견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 연수는 최장 2년으로 해당 기간 중에는 정부의 취농준비자금을 지원받음. 연수가 종료되면, 연수를 받은 농지에서 영농을 시작함.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도 확보되어 있어야 함. 이같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농업 실천형학사라고 부르며, 교토부는 이 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하여 약 150개소의 실천형학사가 운영됨.
- 연수 기간 중 농지 임차료, 연수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교토부에서 지원하며, 일부는 정부의 연수사업 예산을 활용함.
- 후견인은 실천형학사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신규 취농인이 지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농지 확보는 원칙적으로 취농 희망자와 취농 유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농업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함. 농업회의에서 직접적으로 농지 임차자-임대자를 알선하는 경우는 없음.
- 종전에는 2년 연수기간 종료 후 신규취농자에게 10년간 임차하였으나, 최근 연수 종료 후 2년간 임차한 후 추가로 10년 임차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장기 임차 계약한 농지를 신규 취농인이 적절하게 경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소송 등이 불가피함. 농업위원 등 기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연수 기간 동안의 취농자에 대해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취농준비자금은 교토부농업대학, 실천농장, 10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만 지원함.
- 농업을시작하는 닷컴에 주요 내용 설명
- 42개 도도부현에 1개소의 농업대학 운영 중

○ 교토부 농업대학

-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법적으로 모든 도도부현에 1개 설치하도록 하여 전국 42개 도도부현에 1개소의 농업대학을 운영 중
- 교토부 농업대학은 104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약 34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 2년간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며, 이 시기에 취농준비자금 지원을 받음. 20명 정원이나 현재 1학년 16명, 2학년 12명
- 농업기술, 농업경영 교육을 실시하며, 2007년부터 원예 교육 중심으로 전환 (딸, 축산, 임업 등에서)함. 시설 원예, 전통채소, 야채, 꽃, 노지 채소, 노지 꽃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학사학위 등을 원하는 경우 일반 농과대 진학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토부 농업대학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직업 교육 기관임. 전국의 1/4 정도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됨. 학위는 없지만 지역에서는 농업 인재로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음.
- 학생은 비농업인 출신이 대부분으로 졸업 후 부모의 영농 기반을 승계하지 못함. 졸업자의 70-80%가 농업법인에 취업하며, 나머지도 농협, 농기계회사 등에 취업하므로, 실질적으로 졸업자의 100%가 농업 부문으로 취업함.

○ 농지 확보와 농업위원(농업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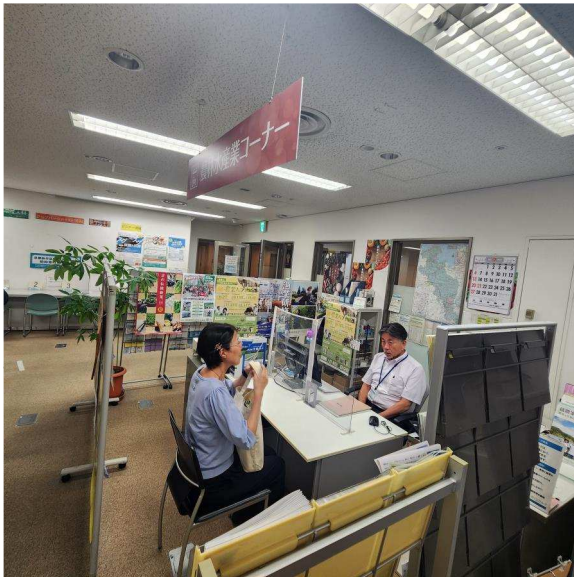
- 연수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실천 농장의 농지는 농업회의에서 임대함. 연수기간 인 2년간 임대한 후, 연수를 마친 신규 취농자에게 추가 2년을 임대해 줌. 취농자가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농업회의에서 10년 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장기 임대 후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 중 농지 회수 불가, 농지 유희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임대차 전에 취농인에 대한 평판 등 확인한 후 농업회의에서 임대차를 결정함.
- 농지법에 의해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농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지 3천ha에 대해 3천만엔의 국비를 교부함. 농지 2만 ha 인 교토부는 약 3억엔을 교부받음. 시정촌 농업위원회에 배분하며 교부금의 용도는 해당 의회 결정 사항임., 교부금이 농지와 무관한 부분에 사용된다는 비판도 존재함.
- 교토부 시정촌의 농업위원은 1-1.5만/월의 수당을 받으며, 교토시의 경우 약 5만엔/월 을 수령함.

○ 우지시 실전형 학사 사례

- 우지차는 유명한 차 브랜드로 교토, 나라, 시가, 미에 지역에서 생산되며 교토부의 점유율이 50% 이상임. 우지시는 교토부의 대표적인 녹차 산지임.
- 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영농 규모화로 대응하면서 우지차 생산 기반을 유지했으나, 농업인 50세 이상이 90%에 달하는 등 후계 인력 확보가 중요

한 현안으로 등장함.

- 차는 신규 취농이 어려운 작목 중의 하나임. 식재후 3년 후에야 수확이 가능하며, 언덕 등이 많아 기계화 곤란해 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임. 신규 취농을 기파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신규 취농자 확보가 어려움.
- 특정 시기에 인력이 집중 투입되어 법인이 1년간 상시 고용하는 방식의 경영도 곤란함.
- 우지시의 미나미야마시로 지역에서 녹차 생산에 대한 위협을 크게 인식하여 사업을 시작함. 2018년에 유지차 실천형학사를 설립함.
- 견학, 프리 인턴십(1-2일), 인턴십(6개월), 실천학사 2년 등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년차는 연구소에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2년차는 취농 지역에서 현장 연수를 실시함.
- 미나미야마시로 지역에 실천농장 개설하고, 취농 가능한 농지를 사전에 확보한 후, 취농자 연수 상황, 취농 계획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규 취농자를 유치하고 있음.



■ 스몰파머스(민간 취농교육기관)

- 방문 일자: 2025년 7월 4일(금), 오후 14시~15시
- 장소: 京都市左京区修学院中林町86
- 면담 일자와 장소 : 2025년 7월 4일(금), 오후 17~18시, 잡카페
- 주요 면담자
 - 이사장 岩崎 吉隆(아와사키 요시타카)

○ 개요

- 실습 농장 규모는 2천 제곱미터
- 농장에서 운영진이 직접 재배하는 모델 구역이 있으며, 3*7m 규모의 60개 교육 구획을 조성함.
- 2월반 30명, 8월반 30명 총 60명에게 1년간 교육함. 2월반은 이듬해 1월까지, 8월반은 이듬해 7월까지 1년간 교육을 받음. 주말(토,일)에 교육과 실습을 진행함.
- 교육비 인당 40만엔이며, 현재 영농 중인 농민 2명을 포함, 3명이 교육을 실시함. 졸업생 5명이 교육을 지원하는 스테프로 참여함.
- 2012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졸업생 약 800명임.
- 스몰파머스는 NPO로 출발, 교육 사업을 진행함. 졸업생이 증가하고 사업이 안정되면서 기존 NPO는 졸업생들의 네트워크 사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역할을 조정하고, 교육사업은 별도 법인(유한책임회사)으로 독립함.

○ 교육 내용

- 교육의 목적은 유기농업으로 다양한 작물을 실제 재배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시키는 것임.
- 유기농업에 대한 기본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40개 작물 재배방법을 교육함. 교육생에게 배정한 농지 구획에 계절별로 40개 작목을 모두 심고 각각의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교육받음.
- 토양 진단, 시비, 육묘, 재배 기술 등 작물 재배의 전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함.
- 1단계는 기초 교육으로 고등학교 수준, 2단계는 응용 교육으로 대학교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여 영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재배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교육함.
- 농기계(관리기, 예취기), 유기 비료 제조, 토양 진단 등 농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도 진행함.

- 유기질 비료는 농작물 잔사, 깻묵, 미강 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부숙하여 1년 주기로 생산하며, 농장 구석에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포장에 있어 교육생이 실습하고 시용할 수 있음.
- 씨앗, 흙 등을 사전에 나눠주고 육묘 단계부터 실습할 수 있도록 함.
- 판매 경험을 위해 교토 시내 카페와 연계하여 마르쉐 실시하며, 마르쉐에서 판매한 실적을 바탕으로 경영 분석에 대한 실습도 추진함.
-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교육 중심이었는데, 대면교육이 어려워지면서 각 교육 과목마다 10분 분량의 동영상 제작함. 교육생은 실습하러 농장에 오기 이전에 동영상 예습을 하고, 모여서는 이론 교육보다는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함.
- 2개 주를 단위로 한 주는 토요일, 다른 한 주는 일요일에 동일한 교육과정을 편성, 9-18시 교육 진행함. 교육생은 2 주 중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으면 됨.
- 실습 대상인 40개 작물은 하계 20작물, 동계 20 작물로 구성, 모든 교육 참가자가 40개 작물을 모두 재배 실습
- 교육생에게 배정된 구획의 관리는 교육생 책임지며, 운영진에서는 지원하지 않음. 주말에만 농사를 지어도 잡초 제거, 관수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즉, 주중에 농작물 관리를 위해 운영진도 교육생도 농장에 올 필요가 없음.
- 유기농업 기술 외에도 농사를 지을 농지 구하는 방법,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관련 정보 등 영농과 농촌 지역 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 교육을 실시함.
- 1년 연수 후 실습을 지속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실습 농장 인근의 별도 포전에서 추가로 실습할 수 있음. 스몰파머스 졸업생이 교육 포장 근처에서 영농하는 농지에 별도의 구획을 개설해 주어, 졸업 이후에도 희망하는 졸업생은 실습을 지속할 수 있음.

○ 신규취농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과 차별성

- 농업을 배우고 싶으나 풀타임으로 농업 연수를 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유기농업 교육 프로그램임. 농업 연수 프로그램은 최소 1년간 1,2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직장인 등 전업적으로 연수를 받기 어려운 사람은 교육 대상이 아님. 또한 대부분의 실천 농장은 유기농업이 아닌 관행농업 기술을 교육함.
- 1년간 농사를 지어보고 영농 여부, 작목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과정임. 1년 교육 후 취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원 생활이나 취미농 등에 배운 노하우

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 기타 사항

- 교토 외에도 인근 지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이동해 실습하는 사례도 있음.
-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기중이어서 1년에 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음.
- 교육 후 30% 가량 취농하며, 나머지는 전원생활, 취미농 등(청년 취농율도 30% 정도)
- 30대, 40대, 50대가 대부분임.
- 소고로를 밭 주변에 식재, 해충 접근 차단하는 등 새로운 유기농업 기술에 대한 시범 영농도 진행함.



■ 신규취농자

- 방문 일자: 2025년 7월 4일(금), 오후 15시~16시
- 장소: 京都府京都市伏見区小栗栖中山田町16-67
- 주요 면담자
 - 長谷川 祐希(하세가와 유우키)

○ 영농 현황

- 2,100 평방미터 농지, 1,000평방미터 농지, 900평방미터 시설 등 3개 농지에서 영농
- 동계작물은 당근이 90%, 코카브(순무) 등
- 하계작물은 양파, 락교, 마늘, 피망, 미니토마토, 오크라, 망간고추 등

○ 취농 과정

- 기계설계업 종사하고 있었는데, 호기심 등으로 2018년 스몰파머스(민간 유기농업 교육기관)의 1년차 교육을 이수함.
- 가벼운 마음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농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취농에 관심을 가지게 됨.
- 영농에 관심은 있으나 연수 후 1년 이내 영농한다는 것에 자신이 없어 취농 준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수 교육은 신청하지 않음.
- 인터넷 등에서 인근의 유기농업 농가를 검색하고 직접 연락한 후 취지를 설명하고 처음에는 해당 농가의 농업을 돕는 수준에서 취농을 시작함.
- 농업인과 상담을 통해 3년간의 농업법인 고용 지원 사업을 받기로 하고 3년간 고용됨. 농업 연수 후 1년 이내에 취농하지 않으면 연수 기간 받은 보조금이 환수됨. 농업법인에 신규 취업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취농인을 고용한 농업법인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취농인이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은 환수되지 않음.
- 농업법인 취업은 농업을 배울 수 있으면서 중간에 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3년 이후 독립 영농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택함.

○ 독립 영농

- 3년간 농업법인 고용 이후, 독립 영농을 결심함.
- 농업법인은 계속 영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법인의 농지에서 영농을 할 수는 없었음. 새롭게 농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농업법인 근처에

서는 농지를 확보할 수 없었음. 수소문 끝에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농업회의로 부터 농지 3개 필지를 임차할 수 있게 됨. 농지 임차료는 유희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농지 소유자가 무료로 임대해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나 상징적인 수준에서 필지 당 연 5천-1만엔을 납부하기로 함.

- 스몰파머스에서 배운 지식과 교사의 도움을 얻어 직접 시설을 설치함.
- 과거 소량 판매 실적이 있어 취농지원 정책 자금은 받지 못함.

○ 영농 실적

- 자영농 3년차 매출 약 500만엔
- 주로 직판장(미찌노에끼)에서 판매하며, 유기농이라 관행농 대비 1.5배 가격으로 거래됨. 수수료는 20-25% 수준임.
- 중고농기계, 차량 등 자산 매입비를 제외하고 순수입은 150만엔 수준임.
- 자산매입비를 모두 지출해서 올해부터는 순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수준의 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할 계획임. 수작업이 많아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농하는 방안 모색하고 있음.



